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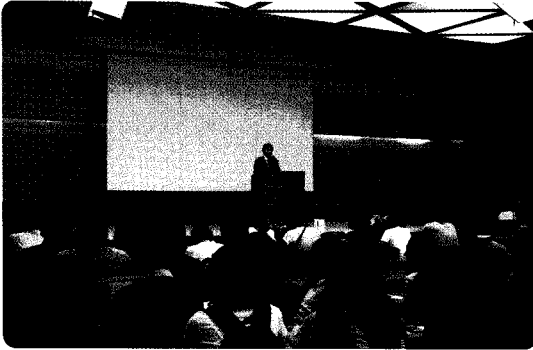
안전한 먹거리 생산 최우선 생산 · 보전환경의 새 패러다임 열터

(사)한국환경농학회(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e and Environment 회장 김장억)는 전세계적으로 환경의 개발과 보전 문제가 핫 이슈로 등장한 1981년 3월 국내 농업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한 환경농학자들로 구성되어 설립되었다. 그 이후 2001년 11월 사단법인으로 출범,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하였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학회는 지난 30여년간 지속가능한 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는 현실에서 자연 생태환경의 보전과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 농업폐자원의 처리와 재활용, 환경오염지 복원 그리고 농업용 신소재 개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학회로 성장하여 왔다.

30살의 성년이 된 학회는 현재 회원수가 750명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그해의 핫



창립30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전하는 김장익 회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용역 과제 착수보고회

이슈를 정해 년2회 전문워크숍을 열어 환경농학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년 4회 출간되는 정기학술지인 한국환경농학회지(30권 2호)는 2002년에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로 평가되었다가 2004년에 등재지로 승격되어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인정을 받았다.

2007년에는 국민이해제고사업으로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농업환경학」지를, 2008년에는 「식품 및 환경중 잔류물질의 분석과 적용」 책자를 발간하여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 바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용역 사업 수행

학회는 최근 '대기오염에 의한나 과수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의한 연구(환경부)' '2003-2005 금강수계 환경기초 조사사업(환경부)' 등의 용역사업을 수행했으며, 특히 올해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설정 연구'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678,093천원의 연구비로 18개의 세부 연구과제팀을 구성하여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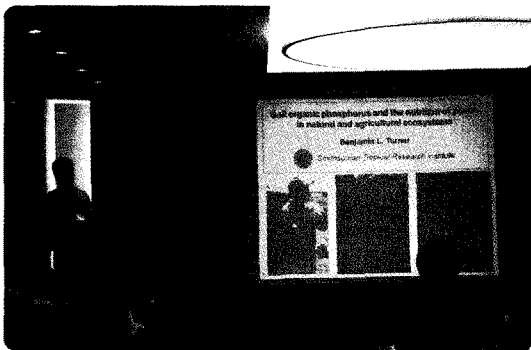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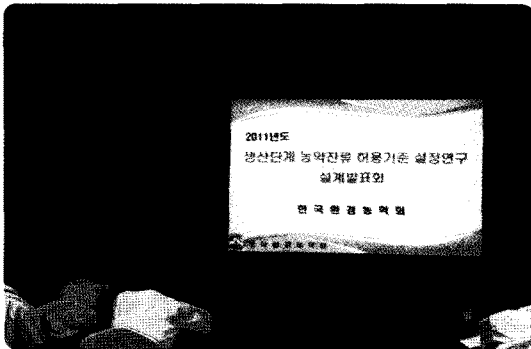
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창립 30주년 국제심포지엄 제주서 개최

이처럼 환경농학분야의 연구 및 대외적인 활동을 활발히 하는 한국환경농학회는 지난 7월 7일부터 9일까지 창립 30주년을 기념한 국제심포지엄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건강한 환경·안전한 식품'이라는 주제로 국내 464명, 국외 43명의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주관한 한국환경농학회 김장익 회장(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 교수)은 주요 성과에 대해 "국내외 전문 과학자들의 초청 강연을 통해 농식품 관련 농업환경의 유해물질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선진 분석기술을 도입하여 농약, 중금속, 독소, 유기오염물질, 다이옥신 등의 신속하고 정밀한 분석기술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며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농업관련 유해물질 환경관리 기술에 관한 새로운 국제 동향에 관한 정보수집이 가능케 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김 회장은 발표된 자료들은 "국제적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학술발표 대회장

로 유통되고 있는 농식품의 안전성 감시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여 수출입 농식품 중 유해물질 발생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활용될 것이다"라며 "다양한 분야에 국제기구, 국내외 과학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농업환경관리 신기술 제공 뿐만 아니라 학문향상, 기술개발, 정책입안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품의 요구

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국내 농식품 안전관리실태에 대해 김 회장은 "금년 5월 유럽에서 발생된 유기농 오이에서 치명적인 슈퍼박테리아의 검출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보도를 접하였다. 농식품의 안전문제는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엄격히 다루어야 할 부분이고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농식품 안전관리는 실제로는 농산물과 식품으로 구분되어 있고 담당하는 부서가 서로 달라 관리에 큰 어려움이 때때로 발생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는 전담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며 식품안전성 향상을 위한 정책제도의 보완점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끝으로 학회 30주년에 학회장의 증책을 맡은 김 회장은 향후 학회 운영방향에 대해 "임기 중에 30년사를 발간할 예정이며 한국환경농학회지를 SCIE로 등재하기 위하여 학술논문 투고 및 심사까지 모든 것을 웹상으로 진행하여 SCIE를 위한 학회지 심사신청을 올해말부터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관련 학회들과의 통합 또는 연합을 모색하여 학회의 대형화를 추진하고 융합학문에 대한 학문의 추세에 적응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향후 환경농학과 관련된 학술분야의 모든 연구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중추적인 학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㉞